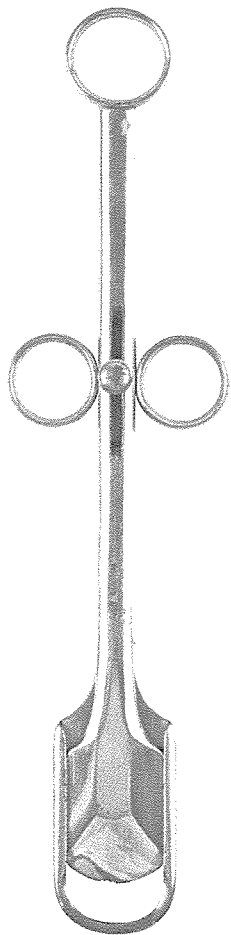


편도절제 길로틴

글|신좌섭(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겸직교수)



사진은 편도(扁桃)나 아데노이드 절제에 사용되던 20세기 초 무렵의 철제 편도절제용 길로틴(guillotine)이다. 작동방식이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와 비슷하다 하여 길로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사진 하단의 우측에 보이는 날 사이 빈 공간에 화농된 편도를 건 다음 좌측의 고리 3개에 손가락을 넣고 당기면, 날이 움직여 마치 단두대에 끼인 사형수의 머리가 잘리는 것처럼 편도가 잘려나가게 된다.

편도절제술은 로마시대에도 널리 시술되었는데, 서기 40년대 셀수스(Celsus)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절제술이 오늘날의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당시 사용된 기구의 형태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이스터(Heister, 1683-1758)는 안쪽에 날이 있는 랜셋(lancet, 披針)을 편도절제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방식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길로틴이라는 명칭과 단두대를 꼭 닮은 사진과 같은 형태의 기구는 단두대가 처음 사용된 프랑스혁명(1789-1799)을 전후하여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 현상이 의료기구의 이미지와 변천, 혁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